

본당 소식

♣ 2025년 재유럽 사목자 회의 안내

- 일시 및 장소 : 5월 19일 - 23일, 밀라노

♣ 성모의 밤 및 미사

- 5월 21일 (수) : 19:00, 오라토리오

♣ 성가대 정기 연주회 < Giubileo _ L'Amore e La Gioia >

- 5월 24일 (토) : 17:30 , 오라토리오

- 많은 홍보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모임/회의

- 성모회 회의 : 5월 18일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18.75€ • 교무금 1,350.00€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김유진 안젤라

전례 성가

입당 : 139 (알렐루야)

봉헌 :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성체 :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파견 : 131 (찬미 노래 드리자)

전례 봉사

이번 주일(5월 18일)	다음 주일(5월 25일)
1독서: 김유진 안젤라	1독서: 강윤이 스텔라
2독서: 이치훈 베드로	2독서: 변가인 헬레나
복 사: 김사빈 엠마, 정이한 다윗	복 사: 이초노부야 가티안, 김익찬 암브로시오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5월 18일 (백) 부활 제5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
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화답송



저 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이름을 찬미하나 이 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
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1독서 (사도행전 14,21ㄴ-27)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21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22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24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25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26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27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21,1-5L)

나 요한은 1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2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요한 13,31-33 1.34-35)

방에서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32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갖가지 혼란을 겪어 온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이 나라에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교육 주관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땅의 교육이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전인적 성숙을 지향하며, 여러 교육 기관들이 영적 돌봄의 장이 되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보살피 주시어, 본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고 이웃에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